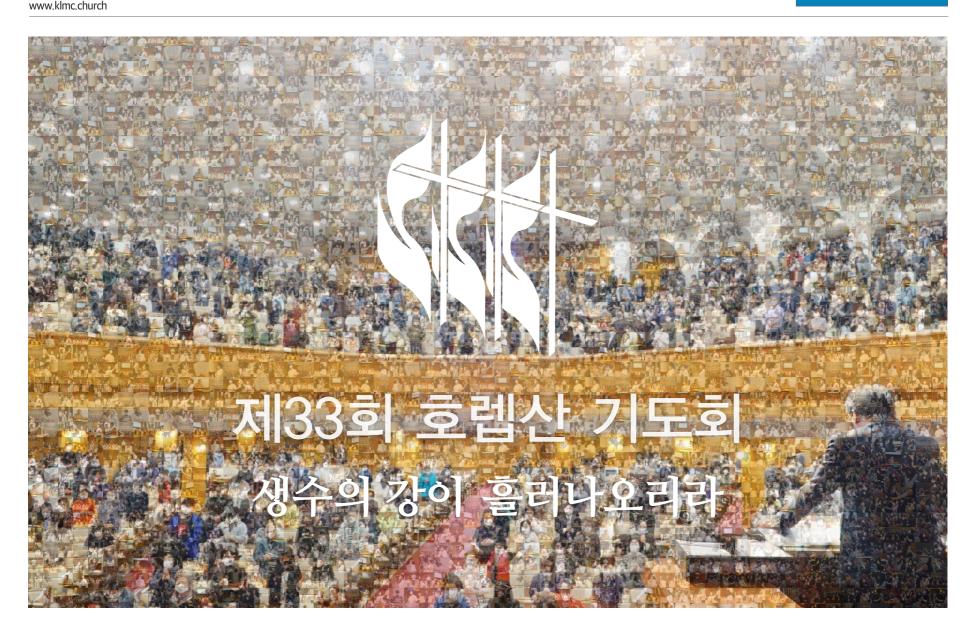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광림 뉴스레터 등록번호 다-467/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 할페이지가 탄생합니다! www. klmc.church



"나라와 교회, 가정을 축복하소서"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7월 9일(금)까지 진행

지난 5월 31일 시작된 호렙산 기도회는 새벽 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에 힘입어 이제 5주차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12일 후인 7월 9일(금)에 종료된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하는 호렙산 기도회는 지난 해에 이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기도회가 진행되 고 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는 기도회 주제처 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 해 성도들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부르 짖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비말감염 최소화로 중단하였던 '주여! 삼창'도 올해는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크게 외치고 있다.

성도들은 공동기도제목으로 '호렙산에서 하 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세계 열방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 주소서, 복음의 사명 을 감당하는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광 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회 주된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김정석 담임목사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심,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 쳐주심, 나사로를 살리심 등이다. 당시에 이 러한 표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 뿐만 아 니라 소문으로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 도 기적이 일어났다. 왕의 신하도 다른 사람 들의 전언을 통해 예수님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믿었고, 예수님께 간 절히 간구한 결과 그 믿음대로 아들이 나음

을 받았다. 표적을 믿는 믿음은 감각적 한계 를 넘어서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 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코로나19로 교회버스 가 운영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차량을 이 용할 수 없는 성도들은 집에서 새 홈페이지 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나이 든 어르신이 젊은 아들에게 차를 태워 줄 것을 부탁해 함께 기도회에 참석한 모습 도볼수 있다.

그동안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남시에서 교회버 스를 타고 왔다는 이정희 권사(13교구)는 올 해는 같은 지역에 사는 교인의 차를 동승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호렙산에 가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 지게 되니까 응답이 된 것 같아 감사를 드립 니다. 교회버스를 탈 때는 출발시간 때문에 설교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를 빠져 나 와야 했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무리 기 도를 하고 나올 수 있어 이것도 큰 은혜입니 다"라고 했다.

호렙산 기도회는 오는 7월 9일까지 매일 새 벽 4시 45분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이번 에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www.klmc. church)와 유튜브(광림교회)를 통해 온라인 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지고

🐱 이득섭 기자

광림의 강단 ▲ 긍휼의 마음

 3
 광림 스토리

 홈페이지 안내

특집 4 호렙산기도회간증

다음세대 청년부국내교육선교

믿음의 현장 광림남교회,서교회, 북교회 용 특집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긍휼의 마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누가복음 7장 14절)

본문은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 습니다. 나인은 '기쁨', '즐거운'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기쁘고 즐거운 성에서는 과부의 아들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 람들은 죽은 아들을 메어 나오고 있었습니 다.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죽은 아들 의 어머니이자 과부가 된 여인이 울면서 함 께 나오자 예수님의 시선은 그 과부에게 향 하였습니다.

과부는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 나는 비극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당시 여자 가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된다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중에 그녀에게 아들은 한 가닥 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아 들을 키웠을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 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꿈 이었던 아들마저 잃는 설상가상의 화가 찾아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다 가가십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존재를 잃어버린 슬 픔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슬픔들이 있 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보다도 더 큰 슬 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 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 셨을 때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은 오늘 그녀에게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십니 다.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돌보는 행 위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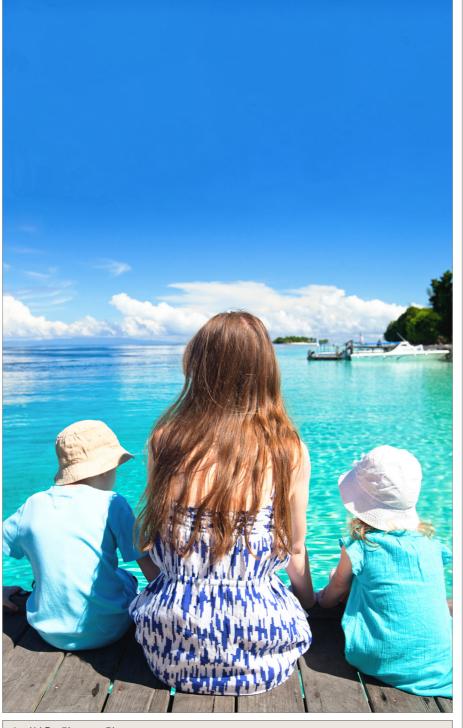
첫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 로 받아들이는 마음

예수님의 시선은 장례 행렬 속에서 슬피 우 는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들에게 민감하셨기 에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 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아픔에 자 신의 마음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 로 '긍휼'입니다.

본문 13절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는 데, 이를 나타내는 원어 스플랑크니조마이 $(\sigma\pi\lambda\alpha\gamma\chi\nui\zeta\circ\mu\alpha\iota)$ 는 '창자가 끊어질 듯 한 고통'을 내포합니다. 즉,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불쌍하게, 측은하게 여긴 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아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헤아리시며 그녀에게 다 가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당 한 자를 향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그 눈 에서 흐르는 눈물을 완전히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 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슬픔을 내 아픔으 | 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17절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 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 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 오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

고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 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 두루 퍼지니라 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 시니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고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 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 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 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 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춰봅시다. 서로의 마음이 움직여 아픔과 기쁨을 공유 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 을 대시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14절)라고 말씀하 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 어나 앉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 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역시 우리에게 긍휼 에 대해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손을 내민 사마리아인을 보 면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우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어 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 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 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 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 니라"(눅 10:33~34).

나인성 과부 이야기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 기를 비교해보면 '가까이 가서'라는 말이 똑 같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긍휼이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의 관에 가 까이 나아가시지 않았다면, 또한 제사장이 나 레위인처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 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곳에는 어 떠한 치유나 되살림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 다. 우리 주변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주 저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음

나인성 과부의 인생은 마치 상한 갈대이자 꺼 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과부에게 어떠 한 소망과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은 인생의 전부였지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과부의 인생에는 모든 희망도, 기쁨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저 눈물과 고통, 슬 픔만 남아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 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부였던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 니에게 주시니"(눅 7:14~15).

'삶의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고 새 생명의 기적을 보여주 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생명의 소생으로 이어졌고,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 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 가 그 아들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앉아서 말 했으며,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 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 한계성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과부에게 다 가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 안에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긍휼의 마음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 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 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I 02-2056-5771

소외된 이웃 찾아 예수님 사랑 전해

광림실업인선교회, 이천 장애인 시설 〈작은 평화의 집〉 방문



실업인선교회(위원장 권후원 장로)는 지난 6월 5일(토) 경기도 이천 어석리에 위치한 〈작은 평화의 집〉에 다녀왔다.

작은 평화의 집에는 현재 16명의 장애인들 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신지 체, 뇌성마비, 자폐증 등을 앓고 있다. 장은경 원장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않아 휠체 어를 타는 1급 장애인으로 30여 년 동안 이 들을 돌보고 있다.

윤지인 권사(사회사업부 담당)는 "장은경 원장님은 자신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애인들을 엄마처럼 돌보고, 그들 의 장례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가슴이 찡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업인선교회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수소문했는데,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정부의 꾸준한 지원 을 받고 있었다. 반면, 6년 전에 후원차 방문 했던 이곳은 규모가 작아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 후원자 들의 작고 다양한 도움들이 끊이지 않아 오 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랑나눔 봉사를 위해 회원들 모두 정 성껏 마음을 모았으며, 원생들에게 꼭 필요 한 생필품(세제, 휴지, 비누, 치약과 칫솔, 티셔츠 등)과 간식, 그리고 후원금을 전달 했다.

실선 회원들은 단체 카톡을 통해 후원금과 물품을 기부하는 회원들의 소식이 '카톡' 소 리와 함께 전달될 때마다 서로에게 잔잔한 사랑과 감동이 전해져 회원들 간에 더욱 하 나 되는 것을 느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 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후원해 줄 계획이다.

권후원 장로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곳에서 실업인선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나 서는 실업인선교회가 되겠다고 했다.

🐱 이정순 기자

새홈페이지로온라인사역의장넓혀

다양한 콘텐츠, 성도들의 영적성장 도와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나 온라인으로 광림교회(http://klmc.

church)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

리고 각종 교회 소식과 기관과 부서별 행사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홈페이지가 5월

광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현재 진행 중인 제33회 호렙산 기도

회를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CTS에서

말 개편을 마쳤다.







방영된 '한국교회를 논하다' 편에서 김선도 감독님의 발자취를 담은 특집 방송도 링크 되어 있다.

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3줄 표시창이 보이는데, 이곳을 누 르면 광림예배, 광림뉴스, 영적공간, 교회 안내. 교회생활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담 긴 메뉴가 나온다.

'광림예배'에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를 볼 수 있으며 그동안 드려진 예배와 영 어, 일본어 예배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본 당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 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와 활동도 참여할 수 있다.

'광림뉴스'에는 뉴스레터, 교회행사, 주보를 통해 교회가 사랑과 선교를 실천하는 생생 한 모습과 교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광림 뉴스레터는 교회주요행사를 성도들과 나 누며 선교, 신앙생활과 간증 등을 통해 소 통의 장으로 활용된다. 교회 행사는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과 교회 여러 행사를 생생하 게 전달한다. 주보는 예배 순서, 교회행사, 성도들의 소식을 전한다.

'영적공간'에는 본당을 비롯하여 광림수도 원, 광림비전랜드, 광림세미나하우스, 사랑 의 집, 감람동산 등 부속시설이 소개되어있 다. 지교회인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와 광림아트센터, 샤이닝스쿨 등 부속기관 들을 살펴볼 수 있다.

'교회안내'에는 선교, 양육, 다음세대 등 교 회 각 부서와 광림교회 목회비전, 성도들의 신앙고백이 녹아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 지막으로 '교회생활'에는 온라인 성경쓰기, 온라인 헌금 안내, 빛의숲 서점 이용방법 등이 나와있다.

또 연말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 확인서 도 본인이 직접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 유병권 기자

포토 뉴스



2021 하반기 속회공과

하반기 속회공과가 발간되어 교구 전도사와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호렙산 기념사진 촬영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성도들을 위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호렙산 간증문 전시

본당 계단에 호렙산 기도회 응답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부착되어 있다.



청장년부 마더와이즈 수료식 청장년부에서 8주간 마더와이즈를 진행하고 6월 6일 수료식을 가졌다.

담임목사 동정



5/31~7/9 호렙산 기도회

감리사협의회

나세남 선정교회 목회자교육

(2차) 개회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내 인생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몇해 전일입니다. 여름휴가가 끝나고, 어느날 부터인가 다리 쪽으로 조그마한 빨간 점들이 생기고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빨간 점들은 개수가 늘고부위가 커져서 치료가 필요해졌고, 원인도, 병명도 모른 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명은 다형홍반으로 밝혀져 일주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형홍반은 나중 점막까지 침습하면 스티븐존스 증후군을 일으켜서 죽을 수도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아셨는지 과일을 팔아서 목회사역을 하시던 개척교회 목사님 내외 분께서 과일꾸러미를 들고 병문안을 오셨 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과일을 팔러 몇 번 오셨는데 그때 과일도 많이 사드리고, 판 매를 같이 도와드렸던 게 고마우셨던 모양 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하 나님께만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뿐 이었습니다.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너 무 가려워서 얼음과 약이 없이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번은 전도사님께서 심방 하시고, 마중하고 돌아와 병실 문을 열었 는데 창문 밖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 날은 비도 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전도사님께 얼른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 도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나 봐요" 그 때는 발진이 점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 뒤로 10개월 정도 저는 면 역치료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로 체중도 많이 늘고, 힘든 투병시기를 지냈지만, 그 기간은 제가 아픈 분들을 진심으로 이해 하고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제 믿음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시 62:1) 그때 주신 말씀은 그 동안 40년 신앙생활 했던, 저를 다시 돌아보며, 사람 에게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잠잠히 엎 드리며 내 입을 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을 구하길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부발진이 조금씩 생기지만, 바울에게 주신 가시가 바울에게 유익이었듯이 저도 저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신앙의 숨 고르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질서 도 없는 제 삶에 여러 모양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온갖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으신 그 분의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좋아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그 분을 만나러 갑니다. 늘 가까이 계신 내 친구예수 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현숙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회계)

넘치게 채워 주시는 은혜

6월 8일, 오후 1시까지 중대병원에 입원하러 가야 한다. 그전에 하고 싶은 일, 못다 한일을 서두른다. 좋아하던 커피도 한 잔 더마시고, 그동안 사귄 동네 둘레길도 걸어보고 화분에 물도 듬뿍 주고, 흡사 잔칫날인 듯 냉장고도 가득 채워 놓는다. 수술 후컨디션이 어떨지 몰라 4박 5일의 입원일정을 앞둔 주부의 마음은 생각보다 무겁고 꽤복잡하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오르던 호렙산 기도회를 올해는 시작할 수가 없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다행히 33교구 중보기도제목을 보며 교구 식구를 위해 기도하며 어느 권사 님이 매일 목사님 말씀을 단체 채팅방에 올 려 주셔서 그 은혜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전 도사님이 가정의 중보기도 제목을 알려 달 라고 하실 즈음 수술 날짜가 잡혔다. 몇 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던 갑상선 왼쪽에 혹 의 크기가 커서 몇 달에 거쳐 혈액, 초음파, 세포, 조직 검사 등을 하며 혹의 종류를 파 악하려 했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 다. 의사는 검사 결과 악성일 확률은 40% 정도지만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있어 수술 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요새 갑상선 수술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지만 4시간 정 도 예상되는 수술시간은 부담되고 더 걱정 되는 것은 성대였다. 입원 전 성대 관련 검 사를 여러 가지 하니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 면 어떡하나 걱정이 더 커졌다.

찬양은 내게 단순한 노래가 아닌 기도이고 은혜의 통로이다. 성가대에서 온몸과 마음 으로 찬양을 올리면 늘 은혜가 넘쳤다. 수 술을 앞둔 나의 기도는 이랬다. '수술을 잘 마치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6월 9일 아침 8시, 몸에 링거를 매달고 다시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오른쪽 목이 아프지 않으냐고 한다. 실제로 누르면 수술하기로 한 왼쪽보다 더 아프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어 있다. 왼쪽 갑상선만 수술하기로 했지만 수술 중에라도 양쪽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기에 아, 양쪽 모두 절제해야 되나 보다... 담당 의사가 일찍 회진을 왔다. "상황이 좀 복잡하다. 입원 전에한 CT 촬영 결과 큰 변화가 있어 초음파검사를 다시 했다. 흔적은 살짝 남아 있지만수술하려한 왼쪽 종양이 없어졌다. 오른쪽에 없던 혹이 생겼지만 단순한 염증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수술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할렐루야! 그 순간 본당에 퍼지는 호렙산 기도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기도 의 동역자들이 떠오르며 혼자보다 함께하 는 기도의 힘을 보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 니다

기도가 절실한 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갈증을 아시는 주님은 나의 필요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구하고 바란 것보다 넘치게 채워 주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6월 9일 퇴원한 나는 6월 10일호렙산에 올랐다. 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얻은 평안

저는 신실하거나 절실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일아침이면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보다는 당장의 편안함과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한 게으른 신앙인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삶은두려움과 걱정, 불평과 교만이 앞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안일함 속에 세상을 쫓아 한시도 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봄, 11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고 해보지 않았었던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게 되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저를 누르고 있을 즈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면들어주신다"라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깊숙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모두가 잠든 가장 조용한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제 자신을 보니 언제나 가득했던 두려움과 걱정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제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과 용기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천사 같은 둘째 아들 예준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회복기 재활병원의 물리치료실장이라는 직책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

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 입대 전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제 곁에 함께 하셨는데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그렇게 제 삶을 180도 변하게 하였고 평안함과 평강이라는 큰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서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 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큰 은혜 받으 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이웅기 성도(광림서교회)

캐나다에서 드리는 호렙산 기도회

너무나도 그립고 생각할 때마다 뭉클해지 는...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목사 님께 먼저 안부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지 금은 조금 멀리 떨어진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내고 있는 5교구 김보람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 2월 1일 남편 신범희 집사 의 학업을 위하여 온가족이 함께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부터 유학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 비 중에 있었지만, 작년 코로나라는 예상하 지 못했던 큰 산이 생기면서 저희 유학의 길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는 받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기약 없 이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았기에,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 하실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0년 호렙산 기도회가 시 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부 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회에 참석했습 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회 기간에 저희 부부는 유학의 문을 열 어달라는 문제와 더 이상 씨름하고 있지 않 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주 시는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 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감사하고 만족하 며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코로나는 더욱 심각해 지면서 상황은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았습 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때가 아 닌가라고 단념할 때쯤 가을의 끝자락에, 갑 자기 캐나다 정부에서 일부 대학에 한해 유 학생과 가족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용 한다는 발표가 났고, 그 후 몇 주안에 막혀 있던 유학 준비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 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시며 결 국 저희는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때에 캐나 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호렙산때 주셨던 은혜가 정말 강렬했 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올해 호렙산도 감사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호 렙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간으로 낮 3시 30분, 영상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 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예배를 통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목사님과 낯익은 성도님들의 얼굴, 그 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희 부 모님의 얼굴을 보며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없이 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모하 게 하시며 감사를 넘치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저 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나누게 하심 에 감사합니다.

✓ 김보람 집사(5교구)



제1순위 기도 제목 '정금 같은 믿음'

호렙산 하면 기도 응답의 장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열 매를 맺은 곳입니다.

'응답의 시간'들을 지나 '응답을 기다리는 시 간'도 분명히 있고 또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 늘 그런 기다림을 통해 성취되어가고 있는 제 기도 제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직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호렙산을 매년 거듭할수록 변화되어 가는 기도 제목이 있 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호렙산을 오르는 시간들이 쌓이며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 하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때론 응답을 기다 리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제1순위 기도 제목으로 만들 어 놓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부 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보여드리기 위 만약 1년 중 40일의 호렙산이 없었다면 저

한 1순위가 아니라 진짜 온 마음 다한 기도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겐 무엇보다 처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주신 축 복의 길을 빙~ 돌아가게 하는 것인지 수많 은 반복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성공을 향한 열망과 집념이 믿음을 향해서는 없는 것일까? 있다고 해도 어째 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끄러운 그런 정도 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 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분을 전심으로 경외 하는가? 이런 물음들 앞에서 작아질 때마다 호렙산의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하나 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답 을 찾아갔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저는 경 험했습니다.

는 어쩌면 아직도 '정금 같은 믿음'을 향한 열망을 가지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 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정금 같이 나아가보 리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기쁨 되고 칭찬받 으리라는 달라진 마음 자세를 가지고 믿음 앞에 서게 된 저는 삶의 루틴이 완전히 달 라졌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 가 제겐 호렙산 기도회를 통한 간증 그 자 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폐하여 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과 같은 때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 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라 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이곳, 호렙산으로 오십시오. 바로 내일, 건강하게 만나요!

✓ 정은선 집사(2교구)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일상의 성화]

데이비드 폴리슨 지음

많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평범한 일상에 서 분리되어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으로 오해한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이 모두 똑같은 틀에 맞추어 이루어진다고 생 각하며, 그 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화의 길로 가는 만능열쇠 는 없다. 아무리 심오한 신학적 내용이 담 긴 훌륭한 조언이라고 해도, 우리 개개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삶의 고유 성을 헤아리시면서, 삶의 실질적인 고민들 에 맞춰 역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성화는 바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저자는 자신의 개인 적인 경험을 비롯한 성화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보다도 '거룩해 져 간다는 것'이 일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님 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를 만나다]

R, C, 스프로울 지음

본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나는 ~이다)의 강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제시한 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이다"라는 뜻으 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신 방식이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 방식 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 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 분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신가? 본서를 통해 예수을 만나 보자.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과의 만남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신앙 간증

중보기도의 은혜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중에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속장으로 속회를 이끌어 갈 때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붙여주 신 영혼들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번의 큰 슬럼프가 찾아왔 습니다. 매번 제 마음을 담아 속원들을 대 하고 사랑해줬지만 속원들은 제 마음도 모 른 채 교회의 문턱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고 현실에 부딪힐 때면 문턱 에서조차 멀어지는 모습이 저를 시험에 들 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네를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너 네랑 함께 하고 싶은데..' 속원들에 대해 여 러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점점 쌓여가던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속장으로써의 회 복이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의 목요집회에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주님이 보내신 속원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도 몰라주는 속원들이 밉고 힘들기만 합니다'라고 투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주님, 저는 그 친구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솔직한 고백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 문득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터라어떻게 구해야할 지 몰랐지만 저의 간절한마음을 담아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되어 가는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속원들 한 사람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제 입술은 그 속원들을 살려달라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눈물의 간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 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마음으로 중보하 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 저를 중보의 자리로 부르셨고, 앞으로도 그주신 선물을 간직하며 저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이 간증이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중보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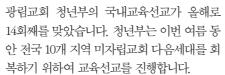


📩 유선화 지구장(청년부)

LFC 광림 청년부 〈2021 국내교육선교〉

전국 10개 지역 미자립교회 다음세대 살리기





전국 10개 지역, 100개 교회를 도우며 2,000명의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교육선교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여름 전국의 지역에 있는 교회학교들을 섬겨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후방선교의 방법으로 지역교회들을 도왔지만, 올해는 전국 각 지역의 다음세대들을살리기 위하여 아이들을 위한 맞춤 키트를 제작하여 직접 찾아가고자 합니다. 청년부는 이번





교육선교를 위해 호렙산 기도회 기간 동안 호 렙산 굿즈를 판매하여 선교 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선교를 위해 청년부는 7~8월 2달 동안 교구 별로 각 지역을 섬길 10개의 팀을 구성합니다. 4인을 한 팀으로 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서 안전하게 교육선교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지역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키트를 전달하고, 다시 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합니 다. 그리고 지역 교회 주변을 다니며 함께 복 음을 전하며 지역 교회로 안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지역교회에서 아이들을 맞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미화를 돕고자 합니다.

교육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김무성 속장은 "코로나 이후 맞는 두 번째 교육선교는 후방선교를 넘어 지역교회와 그 지역을 섬기러 직접나아갑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교육선교를 통해 부어주실 그 시간과 은혜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예준 속장은 "이번 교육선교를 품고 기도하면서 '지역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함께 느끼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하나님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청년부의 교육선교는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면서 또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한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 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들의 아이들을 회복시켜주시는 자리에서 광림의 청년들이 쓰임 받으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부탁드립니다.

🐱 진선규 전도사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7선교구, 사회봉사관에서 '호(렙산)커밍데이'



40일 호렙산 여정 가운데 절반인 20일째가 되는 6월 19일 토요일, 19, 20, 21교구가 속해 있는 7선교구는 호렙산 기도회 후 사회봉 사관 9층 야외정원에서 선교구 예배를 드렸다.

재작년에도 호렙산에 오르는 중턱에 동일 장소에서 선교구 야외 예배를 드려왔던 7 선교구는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모이지 못하다 2년 만에 다시 야외 선교 예배를 함 께 하게 되었다.

7선교구는 '호(렙산)커밍데이'를 기획하여 호렙산 기도회 후 6월 19일 사회봉사관 야 외정원 예배와 호렙산 마지막 날인 7월 9일 밀레니엄 공원 선교구 기념사진 촬영을 계획했다.

지난 6월 19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마스크를 쓴 성도들이 오랜만에 만나 말씀 을 읽고 교회와 나라, 가정을 위해 기도했 다. 특히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 들을 위해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했다.

속회 공과 25강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기윤 목사(7선교구) 는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야곱의 삶 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동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처한 위치에서 늘 감사하 며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축복의 상속 자가 되는 7선교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란 다"라고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교구 가족들을 모두 만나 보기 힘들었는데 호렙산 기간을 통해 은혜도 나누고 얼굴도 볼 수 있어서 기뻤다. 특히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호렙산 마지막날인 7월 9일 기도회 후 밀레니엄 공원에서 7선교구 가족들을 모두 만나 뵙고 사진 촬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며 호(렙산)커밍데이 예배 소감을 전했다.

딸과 두 손녀를 데리고 3대가 함께 선교구 야외 예배에 참석한 박일순 권사(20교구)는 "손녀들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매일 새벽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라며 호(렙산) 커밍데이에 참여한 기쁨을 나눴다.

🖈 박희윤 기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광림남교회〉



청년부 예배 중 '교회와 관련된 추억'을 주제로 사생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듣고 어릴 때부터 작성한 일기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찍어준 사진, 편지 등을 활용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오랜 추억을 하나씩 꺼내보니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 용인 동백으로 이사 와 같은 반 친구 전도로 광림남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는 저에게 너무 낯선 곳이었고, 게다가 저를 교회로 이끌어준 친구는 6개월 뒤 이사 갔기에 그곳은 너무 어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상황들을 마련해 두셨고, 저는 거기에 참여만 하면되었습니다.

2013년,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닐까' 싶을 때 저 녁 예배 간증을 왔던 가수 '선'의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 부터 2명의 외국 아이들을 돕고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진 2016년 수련회 때 은사라는 선물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김예랑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중등부 선생님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로 지금은 저도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에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는 책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작가가 2주 뒤 광림남교회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 후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교회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과 위로가 제 마

음에 전해졌습니다. 십대 시절을 보내면서 저도 몰랐던 상처와 위로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생각에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매해 여름 수련회와 성탄절 전야제 등을 통해 많은 추억을 쌓았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감성을 넘어 지성'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생대회에서 1등을 한 저를 위해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가지시게되어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작품임에도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고익희 선생님, 김예랑 선생님 등 좋은 교사 분들에게 귀한 사랑 받게 하시며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왔던 시간을 뒤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 황혜연 청년(광림남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광림서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90년 6월, 선교국 사회선교부 안에 환경선교위원회가 조직되 었고, 교단차원의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습 니다. 1992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 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광림서교회는 지난 6월 13일 '환경선교주일'로 예배를 드 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되돌아보 고, '감리교 환경수칙'을 낭독하며 맡겨주신 환경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 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생태목회연 구소 설립을 위한 에코백 판매'를 진행하며 환경선교주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학교는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보호미션과 텃밭에 작물 심기를 진행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길거리 청소를 통해 자연을 더 보호하고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환경선교주일을 보내며 어린 아이부터 장 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 상을 되돌아 보며,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기 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복음 전하며 지역을 섬기는 광림북교회



연일 계속되는 호렙산 기도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북교회에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성도들과 함께 지역 사회에 흘려 보내기 위하여, 광림북교회가 위치해 있는 송산2동

(민락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교구장 및 경조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정환명 권사님과 함께, 마스크(KF94) 2000장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안윤배 송산2동장을 만나,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안 동장은 "요즘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교회의 모습에 감동이다.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계셔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단 한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북교회의 작은 선행은 지역 신문인 경기NK 뉴스에도 실려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 전했을 뿐인데, 크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호렙산에서 매일 새벽마다 국내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지역 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교 회'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광림북교 회는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 하여 쓰임 받게 되기를 더 기도합니다.

🐱 황영재 목사 (광림북교회)

딱 한걸음의 순종

- 목회현장 -



유제석 목사 (6선교구)

교구 권사님을 심방 하다가, 처음 교회에 나오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실에 살때 가까이 지내던 분이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동 커튼(스테인드글라스 설치 전)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막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입당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던 시기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당시에 자동 커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천국을 보는 듯한 상상과 꿈을 꾸고 기대에 부풀어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막상 자동 커튼을 보았는데, 본인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에이, 이게 뭐예요.' 본인이 상상했던 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렇게 큰 예배당도 처음 보았고, 수 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길로 권사님은 교회에 나와서 42년을 묵묵히 기도하며, 진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커튼도 전도를 합디다."

딱 한걸음. 그 순종의 한 걸음이 권사님께 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 되었습니다.

딱 한걸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딱 한걸 음을 요구하십니다. 매일 새벽, 그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본당을 가득 채우고 뜨거 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 다 뜨거운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성 도님들의 눈빛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요즘 은 가는 곳곳마다 호렙산 기도회의 응답과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생수의 강과 같은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새벽이 귀 하고 복된 시간이 되신다는 이야기, 호렙 산에 올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이야기, 질병이 치유된 이야기, 막혔던 관 계가 회복된 이야기... 다양한 간증과 믿음 의 고백들을 듣느라 요즘 심방은 시간 가 는 줄을 모릅니다.

이제 호렙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33회 호렙산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자 리요, 눈물의 자리요, 혹은 치유와 회복,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딱 한걸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 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 으로 이 호렙에 오르고 계십니까?

참된 소망으로, 진실한 기도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귀한 믿음을 더하소서!



〈목사 김선도1〉 '목회가 참 신났습니다' 편에서 유기성 목사는 '영성가로서의 김선도'라는 글을 통해 김선도 목사의 영성을 살펴보았다. 광림교회 부목사와 안산광림교회 담임목사를 하면서 영적 지도자인 김선도 목사의 설교와 영성에 대해 많은 가르침과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목소리로만 설교하지 않고 표정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설교하는 김선도 목사의 열정은 영성에 근거한 것으로 그의 영성에는 여덟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 아래는 유기성 목사의 글 요약본이다.

김선도 목사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사이다. 그로 인하여 광림교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자질과 역할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 지만 목회자의 영성은 복음 전파는 물론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힘이 있고 열정적인 설교

김선도 목사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설교 자이고 그의 설교는 열정적이며, 설교에는 힘 이 있고 쉽게 들리지만 언제나 엄청난 결단 을 요구한다. 쉽게 설교하는 것이나 또 말씀 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하게 만드 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김선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의 신념이 그 대로 설교에 담겨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는 다. 목소리로만 설교하지 않으며, 표정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설교한다. 이러한 설교의 열정은 김선도 목사의 영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영성에는 대략 여덟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철저한 청교도의 영성

김선도 목사는 언제나 부목사와 교인들에게 성실함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과 모범으로 가르쳤다. 가까이서 보면 자기 관리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고 성실했다. 청교도적 삶의 자세 그대로였다.

예배 때나 어느 모임에서나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앉은 자세는 시종 흐트러진 적이 없었 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장로교 가정에서 성 장해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하였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애초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 든가 하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중 학교 일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하여 그 습관을 평생 이어갔다.

둘째, 체험에서 나온 적극적 신앙

김선도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한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며 미래를 긍정하는 희망 의 메시지이다. 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 앙은 오직 은총과 성경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 임을 알게 된다. 신사동에 광림교회 예배당 을 건축할 때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현 교회 부지를 하루에 일곱 번씩 돌면서 이 땅을 달 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오늘의 광림교회는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으로 세워 졌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의 영성

김선도 목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결론으로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하 고 있다. 그에게 예수는 추상적인 신앙이 아 니라 함께 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셨다. 그 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세가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의 옛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적극적 신앙의 영성은 철저히 복음 에 근거한 것이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 하여 성공적이고 정상에 오르는 삶을 강조하 되, 은총의 말씀과 신앙의 빛 아래서 그런 삶 을 살 수 있다는 은총의 낙관주의를 주장하 였다.

넷째, 기도의 영성

김선도 목사의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 라면 기도의 영성이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 도의 영성이 있다. 김선도 목사는 오랜 기간 수요기도회 때 '기도의 신학'이란 주제로 설 교하였다. 매년 여름 호렙산 기도회라는 이 름으로 특별새벽기도회를 한다. 그것은 그에 게 있어서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 심을 구하는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언제 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였다.

다섯째, 성경적 영성

김선도 목사는 철저한 성경적 영성을 위하여 광림교회에서 전 교인에게 '트리니티 성서연 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방법으로 벧엘 성 서연구, 네비게이토 성서연구 등이 있지만 좀 더 실용적이고, 개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맞 는 성경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트리 니티란 삼위일체라는 뜻인데 성경을 사실, 의 미, 적용으로 함께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교 인들은 교회에 헌신하고 선교하는 성경적 근 거를 트리니티 교육을 통해 체득하였다. 하 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일조에 대한 헌신과 선교적 마인드, 그리스도인으로의 생활적용 이 구체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섯째, 철저한 웨슬리안으로서의 영성

존 웨슬리는 은총의 낙관주의 신학자이다. 웨슬리 이전의 전통적인 신학의 경향은 인간 의 죄와 타락과 같은 어둡고 우울한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 총 가운데 있는 적극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더욱 강조했다. 김선도 목사는 은총의 낙관 주의에 기초하여 교인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였다. 이러한 웨슬리 영성은 철저한 교인들의 신앙훈련으로 이어졌는데 광림교회 에는 신년초 청지기로 부임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웨슬리안이 메서 디시트라는 별명을 가졌던 것처럼 철저한 말 씀과 삶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일곱째, 창의적인 영성

광림교회의 5대 전통 중 두 번째가 '풍요한 창 조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풍 요를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풍요함 을 창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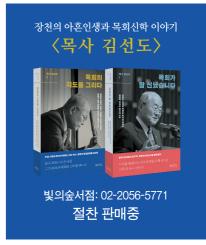
김선도 목사는 남이 하는 그대로 따라 하면 현대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보았 다. 경험상 창의성은 머리에서가 아니라, 발 로 뛰면서 체험한 지식을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깊게 이해하는 순간 촉발되는 능력 이다. 창의적인 목회 중 하나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총동원주일인데 이를 통해 쌍림동에서 뿐만 아니라, 신사동으로 이전한 뒤에도 광림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덟째, 치유의 영성

김선도 목사는 "목회는 영성만이 아니라 사 람의 마음과 정서, 심지어 육체까지 터치해 야 한다. 따라서 의료도구와 과학의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것을 적극 수용해 현 대인의 감성과 정서, 마음과 영성, 그리고 육 체적인 부분까지 전인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목사와 의사, 교수로서 전인적인 영성을 소유한 목회자였으며, 혼란과 좌절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 하는 시대의 목회자였다. 그 영성은 광림교 회로 열매 맺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장 과 부흥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도 많은 영 향을 주었다. 🐱 정리: 이득섭 기자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

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